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남연맹, 제16회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초·중·고·일반부
제목: 『목소리』, 『신발』, 『약속』중 선택

제16회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 내용이 발표됐다.
적독문학회가 주최하고 교육타임즈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남연맹이 주관하며,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음달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초·중·고(재학생 및 동등학력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목소리』, 『신발』, 『약속』으로 초등부 저(초등 3학년 이하), 초등부 고(초등 4학년 이상),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는 위 주제 중 운문(시)과 산문(수필 등) 부문을 선택해 공모하면 된다.
참가신청자는 다음카페 적독문학회(http://cafe.daum.net/AGMYDYD) 공지사항 및 제16회 2층1호 전국백일장(공모전)에서 200자 원고지를 다운받아 응모 기간 내에 우편(충남 서산시 읍지8로 41-5, 극동한신아파트 마을회관 내 2층1

호 백일장 담당자 앞)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작품 원고는 반드시 주회 측이 올려놓은 200자 원고지로 작성해야 하며, 산문작품 제출 시 매수 제한(200자 원고지 기준)이 있다.
▲초등부 200자 원고지 기준 8매 이하 ▲중등부 200자 원고지 기준 12매 이하 ▲고등부 200자 원고지 기준 15매 이하 ▲일반부 200자 원고지 기준 15매 이하다. 표절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입상 후 표절이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제출한 원고(작품)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있다.
시상내역은 ▲학생부 종합장원 상: 충청남도교육감 상장 및 상금 100만원(초·중·고에서 1명) ▲고등부 장원: 1명 충청남도교육감 상장과 상금 50만원, 우수: 1명 2층1호문화연구원 이사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중등부 장원: 1명 충청남도



교육감 상장과 상금 50만원, 우수: 1명 2층1호문화연구원 이사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초등부(저학년부) 장원: 1명 충청남도교육감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 1명 2층1호문화연구원 이사장 상장과 상금 20만원 ▲초등부(고학년부)장원: 1명 충청남도교육감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 1명 2층1호문화연구원 이사장 상장

과 상금 20만원 ▲일반부 장원: 1명 신문사 사장 또는 기관단체장 상 상장과 농특산물, 우수: 1명 2층1호문화연구원 이사장 또는 기관단체장 상장과 농특산물이 주어지며,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을 지도 공모토록 해 많은 입상자를 낸 학교의 지도교사에게도 우수지도자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 발표는 6월 23일 예정이며, 시상식 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한편 이번 백일장대회도 입선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는 수상집으로 여여 참가한 학생 및 각 기관단체에 배포 할 예정이다.
가금현 2층1호백일장 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나라 사랑을 기본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워주는 것은 물론 문학적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 학교장과 담당 지도교사는 이 같은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성진 기자

진천군, 테크노폴리스산단 ‘조기 완판’

16개 기업, 9,060억 투자, 1,160명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충북 진천군이 투자 매력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첫 분양을 시작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이달 완료하면서 2년여 만에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외 경기 둔화, 지방 산단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국 다수 산단에서 분양률 저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 이기에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진천 테크노폴리스산단은 이월면 사당리 일원 총면적 805,260㎡(24만 평)에 총 사업비 1,993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며, 군이 20%를 출자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사업승인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으며 현재 공정률 69.2%로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산단에는 ㈜오리온, 서한이노빌리티(주)를 비롯해 16개의 우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약 9,060억원의 투자 효과, 1,160명의 고용 창출, 2,420억원의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 조감도

생산 유발, 1,028억원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 달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기업이 많이 찾는 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를 유치하는 길

진전을 살리는 길’임을 일찌감치 깨닫고 투자유치-일자리 창출-정주 인프라 확충-인구 증가-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확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다.
실제 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투자촉진보조금과 재정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기업 맞춤 지원 정책 제언 등을 적극 활용해 공격적인 분양 마케팅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부터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담반을 구성, 투자유치 관련 민·관 네트워크와 지역 내 관계기관 공조 체제를 강화해 잠재 투자 정보를 확보할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이미 지역에 동지를 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투자 전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연속성 있는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테크노폴리스 산단 내 우선 입주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난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비롯한 계획된 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 10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테크노폴리스 산단 내 산업용지 100% 분양에 이어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중 기자

당진도시공사의 새로운 시작

공사재조직화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 기반다져



▲ 한국서부발전은 20일 전남 나주 한전케이피에스(KPS) 인재개발원에서 한전케이피에스와 '에너지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사 근로자 교육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영결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왼쪽 세 번째)과 김도은 한전케이피에스 발전안전사업부사장(네 번째) 등 양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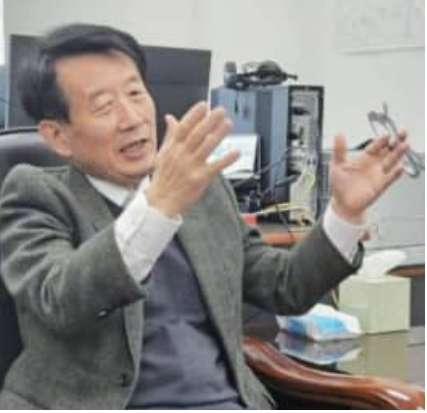
서부발전, 한전케이피에스와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협력

석탄화력발전 협력사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전남 나주 한전케이피에스(KPS) 인재개발원에서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케이피에스와 '에너지전환 대응을 위한 협력사 근로자 교육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줄여줌으로써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현의 일환이다.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는 태안발전본부 상주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60명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 목표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해 협력사 근로자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영결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무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 당진도시공사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 김양수 사장

당진시가 고향인 김양수 사장은 당진도시공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공사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중앙정부 및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외적인 업무협상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드러냈다.
김 사장은 석문초등학교, 당진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LH기획조정실 기획총괄부장, 판매기획처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부장,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그의 경력은 당진도시공사를 이끄는 데 있어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천안에 ‘충남 혁신벤처타운’ 조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구축

천안시에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충남 혁신벤처타운(가칭)’이 들어선다.
천안시는 20일 충청남도,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충남 혁신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를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화강이 참석해 공동 협력 의지를 다졌다.
충남 혁신벤처타운은 충남지역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비전 실현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천안아산역 인근 한국산업은행 소유 토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2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과 금융시설 입주공간, 창업지원사업 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 및 지원기관 유치와 창업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며, 한국산업은행은 혁신벤처타운 건립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공간 조성을 맡는다. 천안시는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혁신벤처타운 건립으로 충청권 창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민간투자자 유치, 미래유니콘 기업 육성, KTX역세권 R&D 집적지구와 대한민국 제1호 복합형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벤처 벨트’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혁신벤처타운 건립은 천안을 비롯한 충청지역 금융 및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의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본 프로젝트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부여군, ‘아시아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 수상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여 세계유산 축제, 해외 수상 이어져



▲ 2025 아시아 축제도시 지정식 및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드 기념촬영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 축제도시 지정식 및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아시아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한 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축제를 시상하고 아시아 축제도시 간 교류 및 성공 비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은 지역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고 세계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브랜드화하며,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도시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은 지난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행사 개최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부여군을 대표하는 야간형 축제인 국가유산 야행과 미디어아트는 그동안 쌓은 성공 비결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발전시켜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달성했다. 세계유산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오연근 기자

대전 중구,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대전 중구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쾌거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이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중구청 13개 협업 기능 관계부서를 비롯해 중부경찰서, 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대학교병원 관절원·재활센터 지하에서 전기가 화

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감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중구청에서 진행한 토론훈련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실제훈련을 통합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고난도 훈련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되어 대전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이번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유관기관과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